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로 비약해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을 현지도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10만 6,600여㎡에 달하는 과학기술전당은 지난세기 80년대에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을 마련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식경제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품치수려한 대동강반에 거창하면서도 화려하고 웅건장중하면서도 회한하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감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과학기술전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지난 시기에 출판된 과학기술도서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세계각국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자도서관화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500석능력의 숙소도 호텔수준으로 건설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야외학습터도 멋있게 꾸리고 분수공원과 과학기술상

징탑도 특색있게 건설하였으며 원림록화도 정말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과학자 숙소의 23층 로대에 서시어 과학기술전당을 부감하시며 정말 요란하오, 대단하오, 별천지오, 숙섭에 천도개벽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완공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을 경축한 뜻깊은 10월이 날마다 흥하는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는 10월로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새로운 시대어로 태어났는데 과학기술전당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결심이라면 산악도 떠웁히고 바다도 메우는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사회주의조선은 강성번영의 령마루에 반드시 올라서게 될것이라는 확신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지휘관들, 일군들,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면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운영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10월의 경축광장에 올려퍼진 인민사랑의 호소

10월의 경축광장에 올려퍼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호소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지극한 연설이어서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가 하는 남다른 긍지속에 꿈속에서도 그이의 연설을 되새기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그이께서는 연설의 마지막부분에서 이렇게 언급하시었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해 나아갑시다! 열사복무. 이 말은 단순한 복무를 뜻하는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인민을 위한 길에 자기의 한복숨을 다 바친다는것이다.

원수님께서서는 당원들에게, 일군들에게 바로 위대한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자고 간곡히 호소하시었다. 당을 위해서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 당도 있고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가 일군들의 첫째가는 본분이고 의무이라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연설의 한 구절이다.

예로부터 정치는 백성을 다스리는것이라 하였다. 국가가 생기고 인류역사가 장구한 나날을 흘러오면서도 정치의 이 공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인민은 언제나 정치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을 가르는데서 인민은 언제나 《피지배계급》에 속하여왔다. 동서고금에 권력이 광범한 인민을 무겁게 짓누르는 정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 생존권을 짓밟히고 때로는 피와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가.

오늘도 세상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민의 슬픈 눈물은 미국땅에도 흐르고 유라시아대륙도 적시고있다.

이 땅과 한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더욱더 비참하다.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집권자의 《공약》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한갓 거짓으로 드러나고 독재통치와

자본의 착취는 날로 더욱 심해져 살기 힘들다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자영업자, 빈민들, 대학생들도 매일같이 거리에 떨쳐나와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리고있다. 돈과 권력이 야합하여 《세월》호가 침몰하고 수백명이 한낱한시에 바다에 빠져죽었으며 집권층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정도로 치부하며 아닌 보살하고 최소한 진상규명이라도 해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유가족들은 돈과 권력이 없어 오히려 당국에 의해 탄압당하는 판이다.

세계의 이런 현실과는 달리 인민대중중심의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이 땅에 새롭게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

민위천의 리념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낳은 희한한 현실인것이다. 하기에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자기의 홈페이지에 실은 글에서 《김정은제1위원장의 정치철학은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서특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연설을 시작하시자 전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숨을 죽이였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는 연설내내 인민에 대해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년력사에 아로새겨져있는 인민의 장엄한 력사에 대해 이야기하시였다. ...

천만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하게 자리잡으신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만 당창건 70돐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이라고 당당하

게 강조하실수 있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연설 마지막부분에서 천명하신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해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는 바로 그이의 정치철학이다. ...이러한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북의 앞날은 창창대해와 같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인민과 함께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건설해가는 전무후무한 력사가 열릴것이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그것은 일군들에게 하시는 당부이기 전에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애민헌신의 정신이다. 조국강산을 희한하게 전변시켜가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는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으로 이어지고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

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워주시다.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을 찾으시어서도 인민들의 밤상에 실지 버섯이 많이 오르게 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공장이 또 하나 건설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1년 365일이 모두 이런 날이였으면 좋겠다고 하시었다.

비물 떨어지는 건설현장을 찾으시면서도, 대소한의 강추위속에 공장을 찾으시면서도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행복속에 웃음을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나날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에 받들려 공화국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순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입니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 애민헌신의 길에서

### 113건의 형성안 지도

문수물놀이장 준공을 앞둔 어느날이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또다시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의 꿈이 또 하나 현실로 꽃피어나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물놀이장의 구내를 걷고 또 걸으며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얼마전 그이께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 미림승마구락부를 하루빨리 훌륭히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뜻밖의 화제를 꺼내시었다. 자신께서 며칠전까지 보아 주신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이 109건이었는데 오늘 4건을 또 보아주었으니 113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였다.

일군들모두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113건! 한개 대상을 건설하는데 형성안을 무려 113건이나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었으니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물놀이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드시려고 얼마나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로고를 바치시였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었고 완공단계에 이른 9월에는 며칠사이에만 두차례나 찾아오시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원수님이시다.

그처럼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문수물놀이장을 세계적인 희한한 물놀이장으로 꾸려주시고는 정작 준공식날에는 물놀이장을 리용할 인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준공페프를 끊도록 해주시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의 한 장면

## 경탄을 자아내는 고국의 음악예술

이번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대표로 행사에 참가하여 고국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예술공연들을 보며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 청봉악단공연, 1만명대공연은 그야말로 음악정치의 비약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도였다.

나는 이전에 모란봉악단이 현대적인 악기로 여러 효과음과 최신연주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과거와는 다른 음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는것을 보며 완전히 매혹되였다. 빠른 속도와 현대적인 전자악기를 가지고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가락의 멋을 그대로 살려내는 기악곡도 신기하였지만 현대감이 넘치는 모란봉악단의 파격적인 선율형상과 독특한 무대연출은 청중을 황홀한 예술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특히 모짜르트의교향곡 40번과 같은 세계명곡들은 50~60대의 기량있는 연주자들이 유능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해야 하는 집체적인 예술작품이다. 그런데 모란봉악단에서는 단 3명

의 젊은 연주가들이 악보도 보지 않고 서로 눈빛을 마주보며 지휘자의 역할까지 맡아 정열적으로 연주하여 곡상을 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기량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성공적인 예술형상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란봉악단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연주단체》, 《온 세계를 앞서나가는 조선예술의 현주소》,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최고급의 악단》이라고 이야기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땅에서도 모란봉악단의 열풍이 불고있는데 우리 동포들은 가수과 연주자들의 이름까지 짚어 가며 공연을 즐겁게 보고 있으며 세련되고 화려한 무대의상을 한 출연자들이 시종일관 활기에 넘쳐있는 공연을 펼쳐보일 때마다 커다란 민족적자부심과 조국애, 동포애를 한껏 느끼고있다.

적은 인원으로도 관현악과 같은 거대한 힘을 발산하고있는 모란봉악단이 공훈국가합창단과 합동공연을 하는 모습도 몹시 인

상적이었다. 남성합창단의 기백있는 노래들과 부드러운 녀성미로 가득찬 모란봉악단의 출연이 잘 조화되어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며 격동을 금할수 없었다.

청봉악단의 세련된 공연도 나의 온넛을 사로잡았다.

김정은령도자님의 발기로 새로 창설되었으며 그 이름에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혁명투쟁사가 직결되어있는 청봉악단공연은 녀성가수들의 맑고 개성적인 목소리와 우아한 불동, 경음악의 황홀한 울림, 음악적감흥을 돋구주는 립체적인 조명 등으로 하여 황홀하기 그지없었고 독특한 성색융합의 안삼불과 금관악기위주의 경음악이 조화를 이룬 새롭고 특색있는 경음악단의 울림은 진지하고 품만 하였다. 세계를 앞서나갈것다는 고국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대동강한복판에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설치된 대형수상무대에서 진행된 1만명대공연도 장관이었다. 춤추는 분수와 새로 건조된 《무지

개》호를 장식한 칠색령통한 불빛으로 하여 더욱 인상깊었던 그날의 대공연에서 출연자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20세기 문예부흥으로 뚝아번졌던 영광의 시대를 되새겨보게 하였다.

지금 세계의 언론들은 김정은령도자님께서 선대수령들의 음악정치를 계승발전시켜 《21세기 새로운 음악정치》를 펴고계신다고 하고있다.

2015년 조선에서 더욱 힘차게, 세련되게 울려퍼지는 노래와 기악연주들은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고국인민들에게 크나큰 정신적힘을 안겨주고있다.

노래와 함께 흘러가고 전진하는 고국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은 정당하며 반드시 최후승리의 날을 맞게 될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고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미국땅에서 음악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우륵교향악단 단장 겸 지휘자, 재미교포 리준두



# 대동강에 두둥실 뜬 행복의 《무지개》호

풍치수려한 대동강에 새로 현대적인 종합봉사선이 두둥실 떠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다. 밤에 불야경을 이룬 그 모습이 꼭 칠색령통한 무지개를 보는것만 같아 더욱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무지개》호이다.

《무지개》호가 봉사를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벌써 그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 평양오는 사람들, 지어 외국인관광객들도 유명한 관광명소의 하나로 정하고 저마다 찾아오고있다.

기자가 취재차로 올랐던 저녁때에도 배안은 국내사람들과 외국인들로 흥성이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동강에 뜬 배처럼 마음도 붓 떠있습니다. 《무지개》호를 타고 밤새 대동강의 저녁바람을

맞으며 즐기곤 마음뵈입니다.》 청진에서 왔다는 어느 한 공장의 직장장의 말이다. 그럴만도 했다. 《결불 안》이라고 큰 배의 내외부가 얼마나 황홀한지 일단 배에 오르면

## 기쁨 싣고, 행복을 싣고

떠나고싶지 않았다. 거기에다 종합봉사선안에 꾸려진 민족료리식당이며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식당, 야외갑판식당, 회전전망식당, 상점 등은 그 형식이 다양하고 이채로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있다. 이처럼 호텔같이 꾸려진 배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편의를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는것이다.

곳곳마다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의 뇌리에 일마진 새로 건조된 《무지개》호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봉사기지로 흥성일

것이라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던 자애로운 그 말씀. 청령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봉사선 《무지

개》호는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공화국의 모습과 이 땅에서 모든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회한한 창조물이었다. 지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더욱더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대동강이 더 밝아진것 같다.》, 《오면 가고싶지 않고 가면 또 오고싶다.》며 감격과 흥분을 터치고있다.

누구나 즐겨찾는 인민의 봉사기지 《무지개》호. 자연의 무지개는 있다가도 없었지만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대동강의 《무지개》호는 락원의 강, 대동강과 더불어 인민을 위한 무지개로 언제나 활짝 피어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간다

얼마전 우리는 대동강의 아름다움을 한껏 더해주는 《무지개》호에서 울려나오는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이끌려 배에 올랐다.

배안에 들어서는 순간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홀이 우리를 황홀경으로 이끌어갔다. 해살모양의 천정, 천반을 떠받치고있는 기둥들도 특색있지만 은은한 색깔의 대리석바닥이며 원형승강기와 라선형계단들도 볼수록 멋이 있었다.

홀을 중심으로 설치된 식당들과 상점들도 훌륭했고 매 식사실마다 형식이 다양하고 이채로왔다. 벽체와 천정, 식탁과 의

자의 색깔까지 커피색으로 단장한 봉사매대에서는 여러가지 차와 커피를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봉사하고있었다.

청량음료를 봉사하는 장소에 식탁과 의자를 조절배치할수 있게 자유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수 있도록 무대까지 설치되어있는것도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흥진 순접대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이렇듯 황홀한 배에서 봉사하는 궁지가 정말 크니까 《무지개》호에 기쁨에 넘쳐 말 하겠다.》

2층의 동석식사실을 비롯하여 3층의 연회장과 야

외식사실들, 4층의 회전식당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이 우리의 멋이 살아나게 독특하게 설계되고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되어있었다.

하기에 《무지개》호에 오른 사람들은 분위기가 아늑하고 은근한것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참으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봉사시설, 대동강과 잘 어울리는 특색있는 문화생활공간이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 갑판우에서는 흥겨운 춤판토

《무지개》호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제일 끄는것은 3층 야외갑판식당이다. 이곳에서는 대동강의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며 강반의 아름다운 풍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밤하늘을 태우며 활활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 대동교와 옥류교의 조명등, 창전거리의 웅장 화려한 살림집들, 오색령통한 불빛속에 춤을 추는 분수... 마치 무지개를 타고 올라 산천경개를 부감하는 심정이다.

350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야외갑판식당에서 유명한 대동강맥주를 마시며 아름다운 대동강의 풍치를 보는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

으랴. 하기에 사람들은 야외 갑판식당의 넓은 공지에서 기쁘고 즐거운 자기들의 심정을 흥겨운 춤판으로 펼쳐보인다. 그중에서도 민족적색채가 짙은 노래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들썩이는 로인들의 춤이 불만 하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

몸은 비록 늙었어도 열세구 좋다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로인들의 흥취나 는 모습을 보노라면 누구나 춤판에 뛰어들고싶은 심정을 누르지 못한다. 평양시 중구역 외성동

에서 사는 조순희녀성(60살)은 《〈무지개〉호에 올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노라니 청춘이 되살아나는것만 같다. 요즘 아들, 며느리가 나를 보고 하루가 모르게 젊어지는것 같다.》고 말하군 한 다며 웃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온 최동오(65살)는 《대동강에 태를 묻고 살아왔지만 이렇듯 황홀한 배에 올라 춤을 추기는 처음이다. 마치 하늘의 무지개우에 올라 춤을 추는 심정이다.》고 말하였다.

기쁨과 행복, 웃음과 랑만이 한껏 넘쳐나는 《무지개》호에서의 흥겨운 춤판은 대동강의 가을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4층으로 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매 층에 여러 가지 봉사시설들이 있는데 그 형식들이 다양하고 이채로운것이 특징이다.

2층에 있는 벨트부페트 식당역시 마찬가지이다. 흔히 부페트라면 다양한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고 요구하는 수량만큼 가져다먹는 식사방식의 하나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부페트라는 말은 은으로 만든 식사도구 및 식기류를 진렬하거나 음식물을 넣는 찬장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중세때 연회장의 식탁 주위에는 초대자가 초대

받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물과 자신의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기 위하여 만든 은식기류들을 진렬하여 전시하는 부페트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식기류

게 많이 대접하는 음식문화로 사람들속에서 인기 가 높다. 벨트부페트란 벨트와 부페트의 합성어로서 사람들이 호를선을 타고 운반되는 로리들가를 많이 대접하는 음식문화로 사람들속에서 인기 가 높다. 벨트부페트란 벨트와 부페트의 합성어로서 사람들이 호를선을 타고 운반되는 로리들

를 진렬하거나 음식을 넣어두는 찬장이라는 뜻인 부페트가 오늘에 와서는 식사문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로 바뀐것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부페트는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다종 다양한 음식을 구미에 맞

게 많이 대접하는 음식문화로 사람들속에서 인기 가 높다. 벨트부페트란 벨트와 부페트의 합성어로서 사람들이 호를선을 타고 운반되는 로리들

운에서 구미에 맞는것으로 골라먹는 식사방식이다. 로리들은 갖가지 색깔의 접시에 담겨 운반된다.

이밖에도 2층에는 연회장과 여러개의 동석식사실들이 있는데 형식이 독특할뿐 아니라 로리들

이 다양하고 그 질이 또한 높은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2층 안내원 장선녀의 말에 의하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로리의 맛이 독특하고 진맛이 난다.》, 《대동강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식사하는 기분이 좋다.》며 좋아한다고 한다.

지금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의 봉사원들은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뜨겁게 느끼게 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7)

단군릉에 비낀 통일애국의지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문명개국의 시원을 열어놓은 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민족의 원시조에 관한 문제가 똑똑히 해명되지 못하고있었다.

옛 사람들이 쓴 역사책이나 현대의 책을 읽어보아도 단군은 실재한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존재로만 되어있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원시조를 찾아내는 문제는 민족의 역사를 올바로 정립하고 나아가서는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일찍부터 민족의 원시조해명문제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81(1992)년 9월 단군에 대한 자료가 비록 신화적인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일제에 의해 여지없이 무시당하고 미제에 의하여 다 마사진 단군과 관련한 유적들을 다 찾아내고 똑똑히 고증하여 단군전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주석께서는 몸소 역사문헌들과 책이 바랜 잡지들까지 읽으시며 자료를 하나하나 찾으시어 역사학자들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시는 과정에 평양의 강동군 강동읍에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 제를 지내면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도 지켜낸 단군릉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그러하여 주체82(1993)년 1월부터 단군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한 결과 단군릉에서 5천여년전의 것으로 확인된 유물이 나오 고 그것이 단군과 그의 안해의 것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였다.

또한 어느 역사기록에서는 단군을 조선의 왕이라고 써 놓은것이 발견되였고 단군왕대를 47대까지 기록한 자료들도 나타났다.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였다는것이 증명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되 찾게 되었으며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 82(1993)년 10월 어느날 단군릉개건과 관련한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남조선사람들이나 해외동포들이 단군릉을 보러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할수 있으므로 상들을 만들어놓는것이 좋겠다고, 지금 남조선에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인이 몇십만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단군릉을 보러 올수 있으며 앞으로 북남대왕이 실현되면 대종교인들이 단군릉에 찾아올수 있다고, 우리가 단군릉을 잘 꾸러놓으면 대종교인들이

평양에 와서 단군릉을 보고 좋아할것이라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실현되면 대종교인들 뿐 아니라 남조선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많이 올수 있다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와보아도 손색이 없게 잘 꾸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는바와 같이 단군릉개건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남녘동포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은 통일애로 달리고있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중히 여기시고 빛내이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로고에 의해 얼마 후 대박산기슭의 풍치좋은 명당자리에는 단군릉이 민족의 시조릉답게 웅장하게 개건되게 되였다.

이렇게 꾸러진 단군릉에서는 지난 시기 개천절을 맞으며 남조선의 단군민족평화화일협회를 비롯한 각계 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공동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왔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군제를 지내는 개천절행사는 단군민족의 훌륭한 전통을 살리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온 겨레의 드림없는 통일의 지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1995년 4월 대박산에 웅장하게 솟아난 단군릉을 찾은 남조선의 전 대종교 총선교인 안호상은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밝혀주시고 시조왕릉을 웅장하게 일떠세워주시어 민족의 오랜 역사를 빛내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퍼력하면서 《단군민족의 일체화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 7천만겨레가 화해하고 단합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단군릉개건 20돐이 되는 지난해에도 단군릉앞에서는 2014년 개천절민족공동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행사에 남측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 김삼열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상임준비위원장은 《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우리모두에게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온 겨레가 마음을 합치고 뜻과 힘을 모으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굳게 새겨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하나로 뭉쳐 통일조국을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해마다 뜻깊은 개천절에 북과 남, 해외의 겨레가 단군릉앞에 모여 단일민족의 피줄과 유구한 역사를 되새기며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가고있는것은 공화국의 통일애국의지와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현은경

관계개선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고위급진접촉합의이후 관계개선의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얼마전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에 뒤이어 평양에서 북남로동자축구가 열린 통일응원속에 진행되여 강산을 통일열기로 더욱 끓게 하였다. 이밖에도 북남사이에는 민간급의 다양한 래왕과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있어 북남관계의 전도를 밝게 해주고있다.

불과 두달남짓한 기간에 북남관계가 극적인 전환의 길에 들어서고있는데 대해 온 겨레가 기뻐하고 세계도 지지찬동을 표시하고있다.

지금 마련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북남관계를 중히 여기고 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립장과 적극적인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군사분계선상에서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대결과 긴장이 첨예화되여 쌍방이 무력충돌의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던 그 운명적인 시각에 민족의 운명, 전도를 헤아려 북남고위급진접촉을 주동적으로 마련한 공화국이다. 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겨레의 발밑에서 타들어가던 전쟁도화선의 불이 꺼지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은 수호되었으며 북남관계는 개선의 방향으로

로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고위급진접촉합의이후 흘러온 나날들에 내외불순세력의 방해책동들이 있었으나 그속에서도 관계개선의 큰 흐름이 이어져오고있는 것도 공화국의 민족중시정책과 통 큰 야망, 적극적인 관계개선의지가 있기때문이다.

온 겨레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립장과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개선에 저촉되고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동족대결소동, 전쟁소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친척들이 만나고 통일축구가 벌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동족을 의연 적으로 삼고 헤치려는 대규모전쟁연습이 벌어지는것은 누가 보기에나 피이한 처사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남조선에서 정계와 사회각계, 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규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강행하면서 그 부당한 역사외곡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족을 걸고두고 억지로 그와 연결시키려 하는 행위로 동족대결을 부추기고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온당치 못한 행동으로서 응당 자중하여야 할것이다. 북남고위급진접촉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리행되여가는 지금의 정세흐름은 북과 남, 겨레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서 누구도 되돌려서는 안되며 끝까지 이어나가 관계개선의 풍성한 결실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아직은 북과 남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지만 서로가 관계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뜻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겨레가 바라는대로 북남관계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열렸던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끝났다.

20일부터 26일사이에 금강산은 흠어져 살아온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감격과 환희

금강산은 민족화해와 통일을 부른다

에 젖어있었다.

그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겨레가 다시금 가슴이 저리도록 새겨안은것은 무엇이었던가.

정말로 세월의 흐름으로도 분별의 장벽으로도 가를수 없었던 혈육의 정이 폭발하는 장면이었다.

내 이런 날을 보자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힘겨롭게 말을 하는 아흔이 넘은 남에서 온 할아버지며 처음 보는 아버지께 절을 올리는 남 녀의 아들부부,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집을 소리로 그려서 남녘의 형제들에게 넘겨준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상봉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수십년만에 만난 아버지앞에서 소년시절인양 두팔을 흔들며 당실당실 춤을 추는 할머니자매도 있었고 65년간 쌓이고 쌓인 정을 물 한모금에 담아 함께 마시며 애뜻한 정을 나누는 부부도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정녕 끓을래야 끓을수 없고 가를

래야 가를수 없는 하나의 피줄인 북과 남의 온 겨레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다.

6.15시대를 그리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가족상봉의 기쁨을 맛보면서 북과 남이 자유롭게 래왕하고 협력하고 상봉하던 6.15시대의 나날들을 그리워하였다.

남측 현대아산의 한 직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1년 8개월만에 다시 금강산에 들어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 현재가 처음 금강산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니다. 6.15년 정말 굉장했죠. 금강산이 비어볼 새가 없었으니까요. 그때가 그림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금강산관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대에 많은 배려를 돌려주셨죠. 김정 은 국 방 위 원 회 제1위원장님의 결단에 의

해 이번 리산가족상봉도 마련되였는데 선대분의 유지를 이어가신다니 금강산관광도 다시 열리 고 남북관계도 잘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만이 아니라 남에서 온 사람들치고 6.15를 그리워하고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남측에서 온 한 가족은 《남과 북은 형제가 아닙니까. 함께 손잡고 다 잘 살아야죠. 그때(6.15시대)처럼 금강산관광도 마음대로 하고 백두산에도 라 여기서 직접 가보고싶어요.》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기자는 자기는 금강산에 두번째로 와보는데 여기는 정말 명산중의 명산이다. 특히 여기 온정리는 아무곳을 파나 온천이 나온다고 하는데 남북관계가 잘되면 앞으로 여기가 굉장해질것이라고 자기의 소감을 피

력하였다.

흠어진 가족, 친척 아닌 온 겨레가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라도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겨와야 한다는것은 상봉장소에 차넘친 뜨거운 념원이요 의지였다.

그 념원, 겨레의 통일 의지를 뜻깊은 상봉장소에서 헤여지기에 앞서 가족, 친척들이 부둥켜안고 오래 살아서 통일된 후 다시 만나자고 한 약속들에서도, 북에서 사는 한 할아버지가 사람들앞에서 소리높이 웨친 《분별의 장본인인 외세를 몰아내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호소에서도 읽을수 있었다.

단풍든 금강산에서는 지금 락엽이 지고있다.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듯.

하지만 민족의 통일념원 뜨겁게 어려서인가, 상봉자들의 마음도,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달아있었다.

민족의 통일념원이 뜨겁게 어려있는 금강산은 지금도 온 겨레를 민족의 화해와 통일로 부른다.

본사기자 최 명 제

가를수 없는 혈연의 정

외세가 강요한 나라의 분별로 하여 우리 겨레는 너무나 오랜 세월 갈라져 살아오고있다. 북과 남에 흠어져 사는 가족, 친척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아오고있다. 사상과 정견, 신앙도 다르다.

하지만 분별의 높은 장벽도, 제도의 차이도 갈라놓을수 없는것이 혈육의 정이고 민족의 피이다.

금강산에서의 상봉은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나의 고향은 경기도 련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 한해전에 겨울방학으로 집에 가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본것이 마지막이였습니다.

혈육과 헤여져 오늘까지 그들을 그리며 살아온 날을 계산해보았습니다. 1년을 365일로 하고 출잡이 65년이니 2만 3 725일이더구만요.

이 날들을 하루와 같이 그리던 친혈육이였습니다. 정말 어느 하루도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도 느낄수도 없을것입니다. 이제 동생들을 만나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

거립니다.》

원산에서 온 박완식할아버지(82살)의 말이었다.

전라남도 광산군 립읍면 사호리에 고향을 둔 선동기할아버지(83살)는 분별로 인해 아버지, 어머니의 립종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남에서 온 사촌동생들과 조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술을 부모님령전에 부어달래줬다고 눈물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이런 가슴 설레임을 안고 진행된 상봉은 첫 시작부터 기쁨과 환희, 걱정의 바다였다.

6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갈라져 생사조차 모르던 가족, 친척들이 이제 만나면 과연 얼굴을 알아볼것인가 걱정들을 하였지만 그것은 공연한 우려였다.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건만 자기의 가족, 친척들이 다가오자 마치 전기에라도 감전된듯이 벌떡벌떡 일어나 달려가고 달려오고 서로 부둥켜안는 가족, 친척들.

처음에는 억이 막힌듯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에는 걱정이 분출되는듯 눈물이 솟구치고 환희의 웨침이 터져나오고...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축구대회 진행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가 29일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의지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경기장에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자!》, 《은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또한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녘의 로동자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글발과 《로동자가 앞장서서 조국통일 완수하자!》, 《만나야 통일이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쓴 프랑카드, 조국통일 주제의 선전화 등이 세워져있었다.

《반갑습니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람자들은 《조국통일》, 《통일 6.15》, 《조선은 하나다!》 등의 구호를 힘있게 웨치면서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었다.

선수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 열망과 의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번 축구대회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경기, 평화와 통일의 경기로 빛나게 장식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

로동자통일축구대표단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풍치수려한 룡라도에서 성대히 개최되는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악화일로로 걸을 때마다 단결과 격폐의 장벽에 먼저 파렬구를 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온것이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었다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 축구대회가 6.15시대의 벽찬 흐름을 다시 이어놓고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기려는 북남로동자들의 강렬한 통일외지와 기개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로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로총 수석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 지난 시기 정세의 변화에 흔들림없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하면서 통일애국의 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겨왔다고 말하였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기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로동자들이야말로 겨레의 만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대회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담겨져있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실현해나가는 로동자들의 큰 걸음으로 될것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평양에서 울려 퍼진 통일의 함성이 백두에서 한나

까지, 한나에서 백두까지 계속 울려 퍼질수 있도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전진 또 전진하여 후대들에게 분렬된 조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물려주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직총 담배련합팀과 《한국로총》 련합팀사이, 직총 수도건설팀과 민주로총련합팀사이의 경기들이 진행되었다.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통일의 광장으로 달리는 은 겨레의 마

음을 안고 힘껏 달리였다.

량팀 선수들과 함께 호호하면서 통일된 조국땅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려는 겨레의 념원을 담아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라고 목청껏 웨치며 통일기를 흔드는 관람자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경기장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었다.

하나의 언어로 서로 찾고 부르고 마음을 합쳐가며 단합과 통일의 공을 몰아가는 박력있

는 경기장면들,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고 고무해주는 량팀 선수들의 감동적인 모습은 관중들로 하여금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이제 더는 갈라져 살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였다.

경기들은 직총 담배련합팀과 직총 수도건설팀이 이긴 가운데 끝났다.

따뜻한 동포애의 정을 안고 뜨겁게 손을 잡은 북과 남의

선수들이 한데 어울려 통일기들을 휘날리며 경기장을 달리자 관람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은 겨레가 삼천리강토에서 통일만세를 높이 부를 그날을 그려보는듯 북과 남의 선수들과 관람자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한껏 어리였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열기를 더해준 이번 축구대회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이으며 북남관계개선에 적극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 통일을 우리 로동자들의 억센 손으로

룡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와서보니 정말이지 흥분과 격동을 금할수 없다.

북과 남의 로동자축구선수들이 한데 어울려 경기를 하면서 고무하고 격려하며 함께 달리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나도 응원자

들과 함께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를 목청껏 웨쳤다.

력사의 전진을 추동하는데서 로동계급은 언제나 시대의 선봉에 서었다.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분렬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데서도 북남의 우리 로동자들이 당연히 앞장서서야 한다고 본다. 지난 시기에도 북과 남의 로

동자들은 한데 어울려 축구도 하면서 어깨걸고 통일대진군을 벌여왔다.

북남의 로동자들이 힘을 합치면 못헤낼 일이 없다. 룡라도에 달아오른 이 통일열기를 계속 승화시켜 자주통일의 봄을 반드시 우리 로동자들의 억센 손으로 안아오겠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자 박성일

## 통일일념으로 차올린 공

친구들과 함께 여기 경기장에 와서 북남의 로동자들이 펼쳐보인 멋진 축구경기를 관람하느라니 6.15시대의 환희가 되살아난다.

정말 감동적이고 환희로운 경기였다. 경기는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경기장에 차 넘친것은 시종 하나가 되려는 통일일념뿐이었다. 경기

장에 나선 로동자축구선수들도 통일일념으로 공을 차올렸고 우리 관중들도 북과 남의 선수들을 다같이 열심히 응원하였다. 민족의 통일일이 뜨겁게 분출하는 이 자리에서 누가 이기든 그게 무슨 큰것이겠는가. 북남의 로동자가 만났고 한데 어울려 통일축구를 한것자체가 민족

의 기쁨이고 경사이며 모두의 자랑이다.

지금 경기장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북남이 화해하고 단합하고, 그래서 통일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살수 없는 영원한 하나이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리일령

##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그리스도교국제연단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그리스도교국제연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세계교회협의회, 캐나다, 도이쉴란드, 영국, 미국, 남조선의 그리스도교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현 정세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국 그리스도교단체들의 활동방향》의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운동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그리스도교단체들의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고 평양호소문이 발표되었다.

호소문은 회의참가자들이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속에서도 커다란 신심과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였고 하면서 지난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기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마련되여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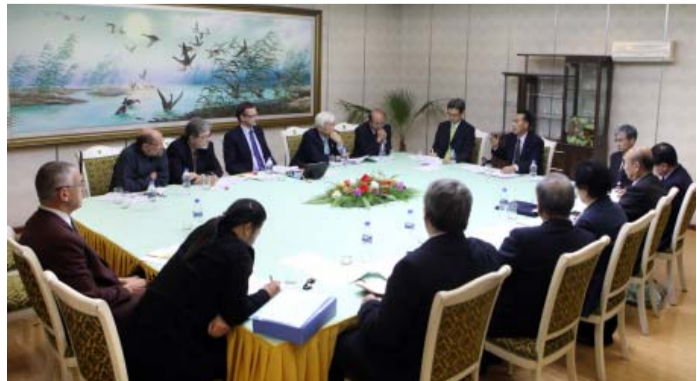
제불능의 악화된 긴장성이 해제되었으나 의연히 정치적대결과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교단체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리행,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파괴하고 긴장격화를 불러오는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군사연습과 무력행사의 중지, 경제제재의 해제, 잊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대결목적으로 사용하고 베라살포와 적대감

을 고취하는 행위의 중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북남사이 호상인정과 평화공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를 지지하는 운동을 광범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호소문은 강조하였다.

또한 호소문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의한 해외무장진출과 평화헌법 9조사항에 대한 재해석행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 화해분위기를 망쳐놓는 군사적대결소동

은 겨레의 커다란 관심 속에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진행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상봉의 나날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로 생사조차 모르고 안타까이 모대기던 북과 남의 혈육들이 서로 만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온 겨레는 마치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았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나기 바쁘게 이러한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외세와 함께 련합해상기동훈련이라는것을 또 다시 벌려놓았다.

《련합해상방위대세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강행된 전쟁연습에는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비롯한 수십척의 함선과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으며 대수상합전, 대공전, 대잠수합전, 기뢰대항전 등 해상기동훈련과 대륙수전부대작전훈련들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면서 조선반도에 또다시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민간인의 태왕과 접촉들이 이루어지고있는 때에 술한 전투합성들을 동원하여 화약내나는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것이야말로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마구 칼질을 해대는 용납 못할 것이 아닐수 없다.

동족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적대적인 군사행동과 북남관계개선훈련은 량립될수 없다. 하기에 공화국은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고 불신과 대결을 낳는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릴것을 호소하

고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며 관계개선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8월합의이후에도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대행위가 그칠줄 몰랐다.

합의문이 채택되기 바쁘게 동족을 파격으로 한 《2015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것을 사상최대로 벌려놓아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시초부터 잡쳐놓은 남조선당국은 련이어 그 누구의 《생물위협에 대한 대비》를 떠들며 《국방연구원》에서 미국과 함께 《생물방어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을 기념한다 어쩐다 하며 호전세력들을 내몰아 공화국을 자극하는 군사적대결광대국을 펼쳐놓는것도, 《북의 전지역라격》을 고아대며 800km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설레발을 친것도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군사적대결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있는 때에 군사적으로 예민한 서해해상에서 정상적인 해상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 경비함에 사격을 가하는 무장도발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동족을 자극하고 헤치기 위한 군사적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지금 좋게 흘러가는 북남관계가 다시 위태로워질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민족의 지향과 북남모두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아야 할 때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그에 전면 역행하는 군사적대행위와 대결소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 김련회의 거침없이 말한다

떨어지는 나무 잎을 보면서도 마음이 서글퍼지고 소슬바람에도 으슬해지는 마가울철이다. 점점 추워오는 한산한 날씨에 낯설은 타향에서 사랑하는 혈육들과 정든 고향을 애라게 그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있는 김련회의 정상은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진보적인류와 겨레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있다. 얼마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싶었으면 평양에 가는 북남로동자축구에 참가하고싶고...》 그가 말한대로 백수십

명의 남조선로동자통일축구대표단이 북남로동자축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다. 며칠전에는 수백명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금강산에 가서 북녘의 혈육들을 반갑게 만났다.

그러나 정작 북에 남면저 가야 할 김련회는 가지 못하고있다. 김련회는 기자회견들과 출판물들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인신매업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남조선에 끌려간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속았다는것을 깨닫고는 인차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그것이 가로막히자 지난 수년간 별의별모지름을 다 써보았다. 이제는 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장에도 찾아와 눈물로써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호소하고있는것이다.

이런 사람을, 그토록 간절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녀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것은 천번만번 응당할것이 아닌가.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정례화》를 주장하는 남조선당국의 말이 진



심이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옳은것이 아니겠는가. 북녘의 한 가족을 생리별시키고도 모자라 돌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를 계속 남녘에 가두어놓고 《인권》과 《인도주의》는 어떻게 말하며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

김련회의 눈물은 말해주고있다. 남쪽땅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비참상, 고향과 혈육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가슴터지는 생리별을 강요하고있는자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인간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혈육의 정을 중히 여긴다면 김련회의 얼굴에서 위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는 거역할수 없는 민족의 요구, 시대의 절절한 웨침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지난 28일 남조선의 《문화일보》는 북이 그 누구에게 《〈국정교과서〉 반대총결기 지령》을 보냈다고 떠들었다.

뿔뿔의 돈을 위해 모략과 거짓, 날조만을 일삼는 사이비매문지의 황당무계한 꾀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지난 29일 서청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의 여러 인물들이 밝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문화일보》의 새빨간 거짓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케케묵은 《종북》타령, 《색갈론》의 다 꾀진 북통을 또다시 요란스럽게 두드려댄것이다.

아마 《종북》타령, 《색갈론》이 《새누리

## 다 꾀진 북통 아무리 두드려보아야

당》에 있어서는 만사를 해결할수 있는 마술지팡이인것 같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남조선에서는 보수당국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책동이 락에 맞는 락살처럼 여론의 못매를 맞고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 전지역의 수많은 대학 교수들과 력사학자들이 시국선언과 련합성명을 통하여 《국정교과서》집필거부를 선언하면서 케케묵은 《종북》타령, 《색갈론》의 다 꾀진 북통을 또다시 요란스럽게 두드려댄것이다.

아마 《종북》타령, 《색갈론》이 《새누리

학자들속에서도 《국정교과서》집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현 당국을 당황망조케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강행추진하는 력사교과서 《국정화》소동이 이렇게 남조선의 각계층과 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독재와 친일매국을 합리화하려는것이 기때문이다. 보수세력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자기들한테도 내려질까봐 두려워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당국은 저들의 장기

집권과 파쇼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력사를 180°로 돌려놓으려 하고있으며 여기서 《새누리당》이 돌격대로 활약하고있다.

지난 시기 《새누리당》은 《종북》타령, 《색갈론》으로 많은 재미를 보았다.

《종북》타령속에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한 수많은 사람들, 지어는 애기어머니들까지 《종북좌파》로 몰아 파쇼몽둥이를 휘둘러본 경험이

는 《새누리당》이다.

이번에도 반력사적, 반민족적인 《국정교과서》강행놀음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찬 역풍에 물리우게 되자 보수집권세력은 지난 시기의 상투적 수법 그대로 《종북》타령, 《색갈론》 타령으로 그 출로를 열어보려 하고 있는것이다.

살길을 찾아보려고 《새누리당》이 이미 다 꾀진 북통으로 아무리 《종북》, 《색갈론》타령을 두드려보아야 거기에서 나올것은 제명을 다 살고 죽어가는자의 입에서 나오는 《푸, 푸》소리뿐이다.

신기복

남조선에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학계와 교육계, 각계층 인민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력사교과서 《국정화》가 안되면 무슨 큰 일이나 나는듯이 집권자의 돌격대가 되어 남조선을 온통 랑장관으로 만들어놓고있다. 《력사학자 90%가 좌파》라는 얼토당토않은 잡소리만 떠들던 그는 28일에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그 무슨 《포럼》이라는데서 《좌파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국정교과서제》도입문제를 리념대결로 몰아갔다.

그가 이처럼 죽을살 등 모르고 《국정화》실현을 위해 리념대결까지 고취하는것은 력사를 저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

치고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다음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의 지지기반을 다져 장차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자는 기도에서이다.

남조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북을

## 《국정화》에 왜 기승을 부리는가

걸고들며 진보와 보수와의 리념대결을 부추겨 음흉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것은 보수세력들의 상투적수법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 각종 선거때마다 이런 수법으로 저들의 부당한 리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지금 매년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은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어떻

게 해서든지 민주개혁세력을 누르고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 《정권》연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바로 그 선상에서 《국정화》문제를 리념대결로 몰아가 민주개혁세력을 억

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들은 《국정화》놀음이 보수세력이 아니라 야당들을 단합시켰다고 평하고있다. 그러나 김무성의 속인들 얼마나 쓰리겠는가. 더우기 매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보수인물들이 《국정화》를 부르짖다가 그것이 오히려 제 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격

은 자기들의 전통과 력사가 밀부리쳐 뽀뽀나갈수 있다는데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매우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그러나 김무성의 속인들 얼마나 쓰리겠는가. 더우기 매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보수인물들이 《국정화》를 부르짖다가 그것이 오히려 제 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격

## 단 평 발각된 《도적고양이》

25일 남조선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당국이 9월부터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비공개로 《비밀조직》을 꾸려놓고 운영해왔다고 폭로하고 현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단행하였다.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의 《비밀조직》운영확인에 덜미 잡힌 모략군들은 문을 닫아걸고 경찰까지 동원하며 스스로의 《연금》놀음까지 벌려놓았다고 한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보원이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만들어 올리는 불법 《대선》활동을 벌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을 그대

로 방불케 하는 장면이다. 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것만 같다.

친일과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국정화》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비법적인 《비밀조직》까지 만들어놓고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이따위짓을 했겠는가 하는것이다.

각성된 여론의 눈초리에 덜미가 잡히자 진땀을 빼며 《교육을 위한 적법한 활동》이니 뭐니 하지만 이런 음모적인 방법에 매달리는 추악한 시정배들이 벌려놓는 《국정화》놀음이니 그것 또한 민심의 규탄을 받을 력사날조극으로 밖에 달리 될수 없는 것이다.

서명수

본사기자 김응철

# 천마산자락에 천여년의 이끼를 덮고

## \* 개성의 역사유적 관음사를 찾아서 \*

개성시에 새로 꾸러진 박연폭포-령통사사이의 관광도로를 따라 한 5리 정도 가느라면 고려시기 수도방어성이었던 대흥산성 북문을 지나게 된다. 거기서 조금 더 가느라면 천마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사찰을 볼수 있다. 이 사찰이 고려 970년에 세워진 조계종사찰 관음사이다.

얼마전 우리는 고려시기 기법사의 탐문스님이 천연바위굴을 찾아낸 후 꾸렸다고 하는 관음사를 찾았다. 1393년에 크게 확장된 후 1646년에 고쳐 지은 관음사에 이른 우리는 이 사찰의 주지인 성천스님을 만났다.

살구나무와 대추나무의 음과 양이 어우러져내는 주지의 목탁소리를 들으며 관음사를 돌아보느라니 1000여년의 이끼 덮인 이 사찰의 력사가 눈앞에 펼쳐지는듯싶었다.

주 지는 위 대 한 김일성주석께서 오래전에 품소 박연폭포를 거쳐 험한 오솔길을 걸으시며 이곳 관음사를 찾아주시었다고, 그이께서는 통나무를 잘 다듬어 편꽃을 조각하여 만든 사찰의 문들을 가리키시며 이런것들은 우리 선조들의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물이 라고 하시면서 잘 보존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 리들은 관음사의 보물로 전해지고있는 관음보살상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주지의 말에 의하면 원래 관음보살상이 두 개였는데 그중 하나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다른 하나는 관음사에 보존

되어있다고 한다. 주지스님은 임진조국전쟁시기 관음사에 기여든 왜놈들이 관음보살상을 훔쳐가려 했으나 의병대의 추격을 피할길 없어 할수 없이 그것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손상이 간 부분이 그때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유백색의 대리석통돌을 가공하여 만든것인데 1000여년전의것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부각한 보살상의 화려한 표정, 품격있는 영락장 등에서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뛰어난 재능을 엿볼수 있었다.

먼 옛날 신자들이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기에

《속세의 어지러운것》을 깨끗이 씻군 하였다는 화강석육조 역시 커다란 바위를 날라다 순수 손로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른 한사람이 들어가 편히 누울수 있게 모양새를 다듬은 기술이 중세의것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울 정도였다.

970년 당시 관음사는 원래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지금은 대웅전과 승방, 7층돌탑과 관음굴만이 남아있다. 사찰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정면 3칸(8.4m), 측면 3칸(6.61m)의 크지 않은 건물이었다.

사찰의 배부른 홀림기둥은 굵기 43cm, 높이가 2.83m로서 높이가 밑굵기

의 6.58배나 되고 모서리기둥은 밑굵기 45cm로서 가운데기둥보다 굵으며 높이는 더 높게 하고 대각선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어 세워 모양새가 특이하였다.

기둥들이 서로 가운데로 조여들어 건물에 오래 세월 흘러도 변형이 가지 않고 든든히 결합될수 있게 설계한것만 놓고도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에 대하여 느낄수 있었다.

관음사와 더불어 전해오는 12살 난 운나소년에 대한 일화도 무척 감동적이었다.

일제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운나는 아버지를 닮아 어려서부터 목공술이 높

았다고 한다. 당시 관청에서는 목공기술이 높은 운나소년에게 관음사의 정문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고 한다.

않는 어머니를 집에 두고 관음사에서 정문을 만들고있던 어느날 어머니의 병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마음은 한달음에 앓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가고싶었지만 정문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수 없다는 위협에 운나는 어머니곁으로 갈수 없었다. 그후 어머니가 끝내 숨이 켜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한 운나는 저주로운 세상을 한탄하며 자기 손을 자르고는 폭동군에 합세하였다고 한다. ... 후날 사람들은 채 완성

되지 못한 그 문을 관음사의 뒤문으로 리용하면서 운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전해오고있다.

이 뒤문은 아름답리 통나무를 커서 만든것인데 은각수법으로 새긴 편꽃과 나무, 한손이 없는 소년의 형상 등이 너무나도 신동하여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관음사에 있는 박우물도 유명하다. 몇해전 관음사를 찾았던 남조선의 한 인사는 《예로부터 이 박우물을 마시면 10년은 젊어진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 박우물을 마시고 몇십년은 더 젊어진것만 같다. 남북이 통일되는 날에 다시 오겠다.》며 이곳 사찰의 박우물의 조약돌을 기념으로 가지고갔다고 한다. 개성의 수많은 유적들중의 하나인 관음사로는 오늘도 많은 국내외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관음사의 대웅전



관음사 대웅전의 내부



관음굴의 관음보살상

# 키 낮은 과일나무와 농장원 박사

지난해 10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로 경제강국건설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교원들에게 학위학직을 수여하는 모임이 있었다. 후보원사와 교수, 박사, 부교수 등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에는 명망 높은 과학자들과 함께 평범한 관농장원도 있었다. 그가 바로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키낮은 과일나무육종방법을 연구해낸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남새전농협농장장의 윤원중(70살)농장원이었다.

윤원중박사가 연구원성한 새 품종의 키낮은 추리, 살구, 복숭아나무들은 심은 다음해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여 3년이면 최고수확기에 들어간다. 정보당 수확고는 이전의 키높은 과일나무들에 비해 4~6배, 비배관리가 쉽고 종전보다 나무모발면적이 100분의 1밖에 안드는것으로 하여 과수학계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윤원중농장원이 새 품종의 키낮은 과일나무들을 연구하기 시작한것은 1969년부터였다. 당시로 말하면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재배하여 과수분야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었지만 추리, 살구, 복숭아나무재배에서는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윤원중농장원은 키낮은 새 품종의 추리, 살구, 복숭아나무들을 육종하

는 사업을 자기가 맡아할 결심을 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다 하는 과수부분의 연구사들도 성공하지 못한것을 농업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한 그가 해내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큰 규모의 과수농장도 아닌 한개 협동농장의 과수작업반에서 그가 키낮은 과일나무를 육종하지 않는다고 타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인 자기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희망대로 마음껏 공부시켜준 어머니 조국에 하나의 재부라도 더해줄수만 있다면 설사 그 길에 한생을 강그리 바쳐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그는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때로부터 40여년세월 그는 우리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어느 한 나무에 추리, 살구, 복숭아나무를 접하여 키낮은 과일나무를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결심품고 떠난 길이었지만 결코 순란치 않았다. 새 종자마련으로부터 육종의 공정마다 걸음 어려움이 따랐다. 때로는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 밤길을 걸기도 하고 미지의 과학세계를 파헤치며 책속에 묻혀 며칠밤을 새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아니었다. 어려운 탐구의 길을 걷는 그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었다. 사동구역 오류남새전

농협농장장의 일군들, 농장원들이었다. 그들은 새 기술자료들도 수집하여 안겨주었고 자주 시험포전에 나와 연구정형도 알이보고 에로되는 문제들도 풀어주었다. 입맛을 잃을세라 색다른 음식을 해가지고 찾아와 신심을 북돋아주는 동지들과 집단 사심없는 방조속에 연구사업은 한결음한결음 진척되어갔다.

정성이면 들우에도 꽃이 피는 법.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수십년세월 키낮은 과일나무육종을 위해 모든것을 강그리 바쳐온 그의 노력은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가져왔다. 새 품종의 키낮은 추리나무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들에 첫 열매가 달렸을 때 온 농장, 온 마을이 기쁨과 환희로 들끓었다.

경에 하 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그의 연구성과를 로해하시고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명금룡

윤원중박사가 새 품종의 과일나무육종에 바쳐온 40여년, 그 세월은 한생을 바쳐서라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 그토록 마음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기어이 꽃피워 정든 고향산천, 어머니조국을 사회주의무궁도원으로 빛내여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워온 헌신의 나날이었다.

지금 이곳 농장에서는 수십정보의 새 품종과일나무모생산지지를 꾸려놓고 해마다 많은 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 각지의 과수부문에 보내주고 있다.

윤원중박사는 말한다. 《조국을 위해 이바지한 것도, 남길것도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것인가. 이런 물음이 늘 나의 심장을 달구어주고있다.》 그가 이룩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는 수많은 국가발명건들과 박사의 학위로 빛나고있다. 오늘도 그는 무성한 과일나무수에 애국의 자욱을 새기며 포전걸을 걷고있다.

본사기자 명금룡

# 푸른 빛과 피빛

요즘 나에게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청년》이라는 말이다. 청년이라는 말은 푸른 하늘처럼 미래가 창찬한 젊은이들을 뜻한다. 청년들은 푸르다. 푸른 소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끝없이 높다. 허나 세계의 청년들이 다 푸르싱싱한 삶을 사는것인가.

얼마전 나는 북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것은 씩씩하고 힘에 넘친 북청년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씩씩함과 용감성으로 자기의 창조물들을 마련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고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그 대표적레라 할수 있겠다. 발전소건설장의 청년들은 한두해도 아닌 오랜 나날 살을 에이는 북쪽의 혹한속에서 함마와 정대로 천연안방을 꺼내고 산을 들어내면서 언제 쌓고 물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갔다고 한다. 또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와 발구로 날랐고 차디찬 강물속에서 들어가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어 레루를 떠받들었다고 한다.

북청년들은 라페치는 불길속에서도 자기 수령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호했고 나서자란 도시를 떠나 산골과 섬마을

로 탄원하여 소중한 청춘시절을 보내는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친자식이 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말아 《처녀어머니》가 되는것이 북청년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였다. 그들은 한마디로 안온한 생활이나 향유의 기쁨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전투적인 생활, 불같은 투신에서 량만의 멋을 찾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청년들이 있는 나라가 왜 젊어지지 않겠는가.

북에서는 최근 《청년강국》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아끼고 내세워 주고 청년들은 이에 보답하고자 발걸음을 빨리 한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빠르니 미래가 앞당겨지고 나라가 젊음으로 약동하며 비약한다. 그러니 청년강국이 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세계의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 북청년들이 알고있을가.

얼마전 남조선출판물에 실린 기사의 글줄이 떠오른다.

《청춘은 푸른 빛이 아니라 피빛이다. 가냘픈 손목에 칼을 그었다. 붉은 피방울로 한글자한글자 썼다. <내 돈 내놔!>》 거리의 나무들이 푸름을 더해가던 지난 봄 어느 날 27살 난 한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고 받지 못한 밀린 생활비와 퇴직금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데 대

해 쓴것이다.

남조선의 청년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해 《포기가 익숙하다. 포기가 이제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익숙하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한다.

하기에 언젠은 암담한 청년현실을 두고 《지금 청년들의 현실은 피빛이다. 아니 재빛이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평하고있다.

청년들의 푸른 정신과 마음이 온통 재빛으로 변한 현실. 빛을 졌다는 리유로 미래를 꿈꿀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무섭다. 가난한 청년일수록 포기할것이 많고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들고 사회에 대한 믿음도 허약하다.

최근에는 《청년빈곤》이라는 말까지 유행된다. 청년빈곤은 20대가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여파는 30대가 되어서도 끈덕지게 따라붙으며 그런 불안정한 생활은 그들의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청년문제는 장기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로 되었다. 현실이 지옥이니 미래가 천국일리 없는셈이다. 현재 세계적인 청년실업률은 13%에 달한다고 한다. 즉 7330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있지 못하고있다.

푸른 빛과 피빛,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북과 절망속에 헤매이는 남조선의 실상이 한지맥으로 잇닿은 하나의 강도에서 청년을 상징하여 너무나도 상반되게 불리우는 이 말속에 그대로 비껴있다.

재미동포 김경라



